

<첨부: 취임사>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지와 보람 갖는 연구원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대 원장

저는 오늘 35년 역사를 가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3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무한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2대 이동필 원장님이 장관으로 영전하면서 생긴 원장 공석기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구원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81년 연구원에 첫발을 디딘 이후 학업 기간은 물론 전문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선후배와 농업계 원로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자가 아닌 경영자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33년간 연구원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마음가짐과 봉사하는 자세로 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개원 이래 지난 35년간 농업·농촌·식품 정책을 선도해 오면서 한국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정의 선진화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시작된 개방농정의 격변기에 우리 연구원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촌의 활력과 활로 모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구원이 이렇게 농업분야 유일

한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밤낮 없는 노력과 함께 농업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과 연구원의 존재 의미인 농업·농촌의 작금의 환경은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과 그동안의 역할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은 2015년까지 서울 회기동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자리 잡은 세종시와도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옮겨야하는 상황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의 세대교체, 우수인력 확보 문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조직 응집력 저하 등도 극복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과제도 산적합니다.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대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 농촌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낮은 곡물자급률,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구원이 이런 문제에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장으로 취임하는 저는 우리 연구원이 '공감연구·현장연구·협업연구'를 실천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이전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연구원이 세계적 농정연구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팎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상생의 창조적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현안·국정과제 중심의 연구 수행체계 마련**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본분은 무엇보다 충실한 연구결과를 갖고 농업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시스템을 개편하여 정책현안과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수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이전에 따른 정책지원 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통개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TF를 운영하여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겠습니다.

## **현장과 고객중심의 공감·실용연구 한층 강화**

농업·농촌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지향적이고 현장고객 중심의 연구를 강화해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슈를 발굴, 현장에서 연구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찾는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현장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현장 밀착형 연구과제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 **지방이전 철저히 준비, 차질 없는 정책지원 기능 수행**

연구원 지방이전 시기가 불과 2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는 연구환경 변화에서부터 직원 개인의 이주 문제까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현안입니다.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조직을 정비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연구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연구 허브기능 강화, 협업체계 구축**

연구원의 인적자원과 연구성과는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글로벌 대응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경영목표인 세계적인 농정연구 메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연구기관과 대학,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사무소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화에 대비한 지역연구 협력도 확대해 지역거점의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원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서비스도 고객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협력하고 소통하는 생산적인 조직문화 구현**

농업·농촌이 어렵고 연구원이 위기적 상황이지만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도한 내부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와 피로감을 극복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확립, 실질적인 멘토링제도 운영, 연구지원 시스템 개편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부서간·직원간 벽을 허물기 위한 다양한 소통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는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원장으로서 소통하고, 솔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과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30일